

부산지역 유통 수삼 중 잔류농약과 중금속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

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인삼은 내병성이 약하고, 동일 경작지에서 최소 4-6년 동안 재배하는 특성상 토양 전염성병해 발생가능성이 높아 효과적 방제를 위해 농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, 토양 내에서 축적되는 특성을 가진 중금속이 축적된 인삼 섭취 시 인체 내에 축적되어 만성적인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음
- 부산지역 유통되는 수삼 중 농약과 중금속 잔류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부산시민의 수삼섭취량에 따른 위해성을 평가 연구 실시

II 연구개요

- 기 간 : 2020. 1. ~ 2020. 11.
- 대 상 : 부산지역 유통 수삼 71건
- 항 목 : GC분석농약 181종, LC분석농약 49종

III 연구결과

-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부산지역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삼 71건에 대하여 동시분석이 가능한 230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고 중금속 중 납, 카드뮴의 잔류실태를 조사하였다.
- 검사 결과 1건에서 1회의 농약이 검출되었고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없었다(검출률 1.4%). 검출된 성분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0.0091%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.
- 71건의 부산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수삼의 중금속 검사결과 납의 평균 함량은 0.125 ± 0.023 mg/kg, 카드뮴 평균 함량은 0.047 ± 0.037 mg/kg 이었으며, 모두 인삼의 중금속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하였다.

IV 정책연계방안

- 향후 식품안전관리 지침 및 잔류농약허용 기준 마련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 제공

V 활용계획

-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먹거리이용을 위한 정보제공
- 부산지역 유통수삼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수준 및 소비촉진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